

요약

영국은 은퇴자가 연금 인출기에 직면하는 투자위험과 장수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연금자유화 이후 연금 적립금의 일시금 인출과 재량인출이 증가했지만, 최근에는 연금화 상품이 다시 늘고 있음. 특히, 연금화 상품 가운데 건강상태에 따라 연금액을 차등 지급하는 건강상태 반영형 연금화 상품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고령층에게 합리적인 선택지로 주목받고 있음

- 영국은 2015년 연금자유화(Pension freedom) 이후 은퇴자의 연금 인출 방식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되, 인출기 투자위험과 장수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보조 장치를 강화하고 있음
 - 영국의 연금자유화는 2015년 4월부터 확정기여형(DC) 연금 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 적립금을 종신연금으로 전환하지 않고도 일시금 인출, 인출형 운용(Drawdown), 연금화 상품 구매 또는 이들의 조합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편한 제도임¹⁾
 - 연금자유화로 인해 은퇴자의 선택권은 확대되었으나, 복잡한 의사결정과 과세 문제, 사기 위험, 장수위험 관리 필요성이 함께 커지면서 공적 가이드선스와 정보 제공 체계의 중요성이 높아짐
 - 이에 영국은 「Financial Guidance and Claims Act 2018」에 따라 노동연금부(DWP) 산하 공공기관인 Money and Pensions Service(MaPS)를 설립하고, 연금·재정·부채와 관련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²⁾
 - 연금과 관련한 정보는 MoneyHelper 웹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Pension Wise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50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연금 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운영하고, 연금 가입자가 은퇴 시점에 돈을 받을 수 있는 방식과 각 방식의 과세 방식, 연금 사기 예방 등에 대해 안내하고 있음
- 영국은 은퇴자가 실제로 연금을 인출하기 전부터 은퇴 준비 안내자료(Wake-up pack)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연금 대시보드 프로그램(Pensions Dashboards Programme)을 통해 개인이 여러 연금 정보를 한 곳에서 조회할 수 있는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음
 - 금융행동감독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 FCA)는 소비자가 은퇴 후 연금 인출을 위한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더 적절한 시점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50세부터 그리고 50세 이후 5년마다 은퇴 준비 안내자료를 제공하고 있음³⁾
 - 이는 은퇴 직전에 일회성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 아니라, 은퇴 전 단계부터 반복적으로 은퇴 이후 소득에 인출 선택을 준비시키는 구조임

1) GOV.UK(2015. 3. 4.), "Pension freedoms protected and now breed of pension schemes become law"

2) Money&Pensions Service(2025. 9. 17.), "Strategic Plan 2025-28"

3) FCA(2025. 9. 25.), "Retirement Outcomes Review"

- 영국은 2022년 연금 대시보드 규정 및 FCA Handbook 요건에 따라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는 연금 제공 기관 및 연금 상품을 2026년 10월 31일까지 연금 대시보드 시스템에 연결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연금 가입자는 연금 대시보드 프로그램을 통해 본인의 여러 연금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됨⁴⁾
- 연금자유화(Pension freedom) 이후 재량인출(Drawdown)과 일시금 인출(Encashments)이 확대되었으나, 최근에는 금리상승과 장수위험 관리 필요성 등으로 연금화 상품(Annuities)의 판매가 다시 증가하고 있음
 - FCA에 따르면 2024년 3분기부터 2025년 1분기까지 최초로 인출·전환이 개시된 연금플랜은 총 96만 1,57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8.6% 증가했음⁵⁾
 - 이 중 일시금 수령은 46만 2,160건(48%), 재량인출은 34만 9,992건(36.3%)으로 나타남
 - 연금화 상품은 8만 8,430건으로 9.2%를 차지하고 있으나, 전년 대비 7.8% 증가한 수준으로 영국 연금 시장은 유연한 인출 방식과 소득 보장 상품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영국 연금화 상품 중에는 가입자의 건강상태를 반영해 연금액에 차등 지급하는 건강상태 반영형 연금화 상품(Enhanced annuity)이 있는데, 일반 종신연금보다 높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은 고령층에게 합리적인 선택지로 주목받고 있음
 - 건강상태 반영형 연금화 상품(Enhanced annuity)은 가입자의 건강상태나 생활습관에 따라 기대여명이 평균보다 짧은 경우, 일반 종신연금보다 더 높은 연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연금 상품임⁶⁾
 - 2024년 3분기부터 2025년 1분기까지 영국 연금보험 판매 중 건강상태 반영형 연금화 상품 판매는 4만 2,339건으로 48%를 차지했으며, 이는 2021년 3분기부터 2022년 1분기까지의 기록인 2만 2,956건(34%)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임⁷⁾
 - 건강상태 반영은 보험회사가 공공의료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소비자가 은퇴·건강 질문지(Retirement Health Form)를 통해 건강정보와 생활습관 정보를 제공하고 보험회사가 이를 활용하여 기대여명 및 연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임
 - 보험회사는 소비자가 작성한 질병에 대해 담당 의사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부정확한 답변이 확인되면 연금액 감액 또는 계약 취소가 가능함⁸⁾

4) Pensions Dashboards Programme 홈페이지, "Progress update report"(<https://www.pensionsdashboardsprogramme.org.uk/progress-update-report>)

5) FCA(2025. 9. 16.), "Retirement income market data 2024/25"

6) FCA(2019. 1. 11.), "COBS 19.9 Pension annuity comparison information", Handbook

7) FCA(2025. 9. 16.), "Retirement income market data September 2025"

8) The Retirement health Form 홈페이지(<https://www.retirementhealthform.co.uk/adviser>)